

주진모 × 한예슬 만남만으로도 방송가 빅이슈!

파파라치 세계 집중 조명



3월 6일(수) 첫 방송

〈황후의 품격〉 후속 새 SBS 드라마스페셜 〈빅이슈〉가 3월 6일(수) 첫 방송된다. 〈용팔이〉를 쓴 장혁린 작가와 〈신의 선물-14일〉을 연출한 이동훈 감독이 손잡은 〈빅이슈〉는 희망에 고문당하고, 악마에 저당 잡힌 세상에서 불편한 진실을 들추어내는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파파라치 전쟁기’를 그린다. 주진모, 한예슬, 김희원, 신소율, 최송현, 송경철, 오광록, 안세하, 민서 등 민고 보는 배우들이 총출동하여 이제껏 본 적 없는 파파라치의 세계를 정면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진모는 한때 국내 최대 일간지 엘리트 사진기자였으나, 사진 한 장 때문에 일도, 자부심도, 가족도 잃고 알코올 중독 홀리스로 전락한 한석주 역을 맡았다. 한석주는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그토록 경멸해 마지않던 파파라치가 되기로 기꺼이 마음을 먹는다.

한예슬은 국내 최고로 악명 높은 연예 스캔들 전문 파파라치 신문 ‘선데이통신’의 편집장 지수현 역을 맡았다. 지수현은 놀라운 인맥과 정보력으로 셀럽들의 스캔들을 잡아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이다. 한때는 그녀도 진실을 전하는 기자를 꿈꿨으나, 무시당하는 진실보다 힘 있는 현실을 택하며 막강한 권력을 얻었다. 지수현은 우연히 마주친 석주에게 그의 절박함을 이용해 파파라치 일을 제안한다.

김희원은 선데이통신 대표 조형준 역을 맡았다. 형준은 지수현이 물어온 정보로 3류 인터넷 신문인 선데이통신을 단숨에 유수의 인터넷 연예 신문사로 올려놓은 인물이다. 모든 비밀을 공유한 지수현과 공생관계이자, 그 비밀을 쥐고 수현을 위협하고 조종하는 노획한 인물이기도 하다.

신소율은 방송 예능 작가 출신의 선데이통신 취재기자 장혜정 역을 맡았다. 몸담았던 방송가의 인맥을 통해 뒷이야기를 캐내는 데 전문적인 솜씨를 발휘하며, 석주가 속하게 되는 취재3팀의 팀장이기도 하다.

최송현은 나라에 떨어진 석주에게 이혼 서류를 내미는 석주의 아내 배민정 역으로 출연한다. 배민정은 남편의 명예욕 때문에 자신과 딸이 희생됐다며 매몰차게 석주 곁을 떠나지만, 실상 그녀가 사랑한 것은 성공가도를 달리던 때의 석주였을 뿐이다.

송경철은 서울역 지하도 골목대장 두철 역을 맡아 노숙인들에게 알바를 알선하고 구전을 받는 홀리스계의 권력자를 연기한다.

오광록은 배운 척, 아는 척, 자칭 고 박사 역할을 맡아 여기저기 안 끼는 데 없는 끈대 스타일의 전형이자, 의외의 지성미를 뽐내지만 과거는 전혀 알 수 없는 노숙인을 그린다.

매회 비밀스럽고 매혹적인 연에게 뒤편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빅이슈 쟁탈기’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빅이슈〉는 3월 6일(수)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정글의 법칙 in 채텀> 3월 2일(토) 밤 9시 첫 방송 새해 첫 정글로 떠난 41기 병만족, 더욱 험난한 생존기 예고



토요일 밤 9시로 자리를 옮긴 뒤 단숨에 토요일 밤을 평정한 <정글의 법칙>의 41번째 생존기 '채텀&태즈먼' 편이 오는 3월 2일(토) 밤 9시 첫 방송된다.

41기 병만족이 생존에 도전한 곳은 뉴질랜드 동쪽에서 약 800km 떨어진 채텀 섬과 남섬의 북서쪽 끝에 위치한 태즈먼이다. 이곳에서 2019년 새해 첫 정글 생존에 나선 멤버들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더욱 거칠고 힘든 정글을 경험했다는 후문이다.

전반전인 <정글의 법칙 in 채텀>에는 9년째 정글을 지키고 있는 국민 족장 김병만을 필두로 예능의 신 김종민, 정글 탐

색왕 헬로비너스 나라, 짐승돌로 거듭난 뉴이스트 백호, 만능배우 김인권과 이전 라스트 인도양 편에서 큰 활약을 보여줬던 문가비, 돈스파이크가 생존에 나선다.

채텀은 제주도의 약 2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섬으로 접근이 어려워 때 묻지 않은 원시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국제 날짜변경선에 위치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멤버들은 그 어떤 도구도 없이 '석기 생존'에 도전했다. 멤버들은 자연 재료를 수집해 직접 도구를 만드는 등 7인 7색의 강력한 생존력을 발휘했다.

이어지는 후반전 <정글의 법칙 in 태즈먼>에는 다수의 배우들이 포진되어 있다. 쓰리 강의 멋진 케미를 보여줄 배우 강경준, 배우 강기영, 줄리엔강을 시작으로, 정글 유경험자인 배우 김승수와 윤박, 매력만점 배우 고성희, 씨스타 출신 배우 윤보라를 비롯해 대세 개그맨 박성광, 상큼 아이돌 모모랜드 낸시와 골든차일드 최보민이 태즈먼 생존에 나선다. 류승호 PD가 연출하는 이번 <정글의 법칙> '채텀&태즈먼' 편에서는 야생의 모습을 간직한 대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병만족의 역대급 정글 생존기가 공개될 예정이다.



Mobidic

김준현과 보통 청춘들의 음주 힐링 토크 <김준현의 짬>

“준현이 형과 술 한 잔 하고 싶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2월 19일(화) 오후 6시 30분 SBS모비딕 채널을 통해 만취진심 청춘 토크 <김준현의 짬>이 공개되었다.

<김준현의 짬>은 어떤 고민도 들어줄 것 같은 '푸근한 형님' 김준현과 이 시대의 보통 청춘들이 포장마차에 둘러앉아 솔직 담백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본격 음주 힐링 토크 콘텐츠다.

촬영은 김준현이 무명 시절 자주 들렀다는 영등포의 한 포장마차에서 진행되었다. 제작진과의 사전 미팅 때 “낮을 가린다”고 밝혔던 김준현은 이 말이 무색하게 술이 한 잔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형'으로 변신해 분위기를 주도했다. 특히 현장의 동생들을 위해 기타를 치고 멋진 노래를 선물하며 TV에서는 공개된 적 없는 음악 애호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준현은 “남의 고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남의 고민 속에 내 고민이 투영돼 있어서다. 내 인생 첫 웹 예능인데 젊은 동생들과 술 한 잔 하며 어울릴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진솔하고 편하게 시청자와 만날 수 있는 것이 웹 예능의 매력인 것 같다”고 첫 촬영 소감을 밝혔다.

제작진은 “김준현이 첫 촬영부터 과감하게 만취한 모습을 공개했다.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준현의 매력이 충분히 발휘될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또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짜이

지 않은 솔직함이 담길 것이니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푸근한 형님 김준현과 함께하는 만취진심 청춘 토크 <김준현의 짬>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 모비딕 채널(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곰TV, 판도라TV, 피카캐스트)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김준현과 직접 만나 술 한 잔 기울이며 고민을 상담하고 싶은 청춘이라면 모비딕 유튜브 채널 또는 메일(mobidiczsan@naver.com)을 통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탐사보도부 끝까지 판다팀 한국기자상, 한국방송기자대상 다 잡았다



탐사보도부 끝까지 판다팀(정명원, 이병희, 김지성, 박세용, 김종원, 한세현, 장훈경, 유덕기, 박하정, 정성진)의 '에버랜드 수상한 땅값과 삼성 합병', '삼성 차명 부동산과 흔들린 조세 정의' 연속 보도가 2월 21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0회 한국기자상을 받았다. 한국기자상은 한국기자협회가 한 해 신문, 방송, 통신에 게재된 기사 중 가장 좋은 기사를 가려내 수여하는 상이다.

한편, '에버랜드 수상한 땅값과 삼성 경영권 승계'(정명원, 이병희, 박세용, 김종원, 한세현, 장훈경, 박하정, 정성진, 안



헤민, A&T 조창현) 보도는 1월 29일(화) 방송기자연합회가 한 해 가장 뛰어난 뉴스, 또는 보도프로그램에 주는 2018년 한국방송기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삼성 연속보도는 그동안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방송기자상, 제45회 한국방송대상 대상, BJC 올해의방송기자상, 제28회 민주연문상 본상,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는 이달의 좋은 보도상 등 사내외 보도 상을 휩쓸었으며, 이번에 한국기자상, 한국방송기자대상까지 받게 돼 작년 한 해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보도로 인정받았다.

탐사보도부 끝까지 판다팀 인권보도상 수상



탐사보도부 끝까지 판다팀(이병희, 김종원, 한세현, 박하정, 정성진, A&T 조창현)이 2월 26일(화)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제8회 인권보도상 금상을 수상했다. 이병희 기자 등은 '부를 땀 국가의 아들, 아플 땀 당신의 아들' 연속 보도를 통해 군 병원 내에서 벌어지는 사병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고발해 국방부 차원의 가시적인 대책을 이끌어냈다. 동 보도는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방송기자상, 제21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을 받은 바 있다.



“SBS 슈퍼콘서트, 우리가 투자하고 주최하는 뮤직페스티벌로 키울 것”

- 윤대중 부장(예능3CP 소속)

예능본부는 작년에 성과가 있었던 '슈퍼콘서트' 등 공연사업을 올해 더 확대한다. 공연사업을 맡고 있는 윤대중 부장을 만나봤다.

작년에 공연사업 TF가 출범했고 올해는 공연사업담당 직책도 생겼다.

TF에는 PD들과 예능운영팀, 경영기획팀, 미디어사업팀이 참여하고 있다. PD들은 예능3CP 소속이고 안범진 공연사업담당을 비롯해서, 저와 최승준 차장, 윤태욱 차장이 함께 일한다. 업무는 크게 'SBS 슈퍼콘서트' 국내 공연/해외 공연/시상식(더 서울어워즈, 청룡영화상), 그 외의 특집성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올해 디지털채널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프로젝트별로 역할(프로듀서, 디렉터)을 분담하는 구조다.

올해 'SBS 슈퍼콘서트' 계획은?

국내 두 곳, 해외 세 곳을 목표로 한다. 국내는 4월 28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SBS 인기가요 슈퍼콘서트' 개최가 확정되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콘셉트이며 3월 초에 라인업을 공개할 텐데 빅 카드가 준비돼 있다. 7월에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와 콜라보로 해변에서 열리는 슈퍼콘서트를 기획 중이다.

해외는 7월 6일에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SBS 슈퍼콘서트 in 홍콩'이 열린다. 그 외에 동남아와 유럽 등에서 SBS 슈퍼콘서트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사업성과는 어떠했나?

7월 7일 타이베이 난강 전시장에서 열린 'SBS 슈퍼콘서트

in TAIPEI'는 BTS, 레드벨벳, 마마무, 빅스, 아이콘, 세븐틴이 참여, 대만에서 열린 K-POP 콘서트 중 가장 규모가 큰 공연(18,000석)이었다. BTS의 출연으로 현지에서의 반응도 역대급이었고, SBS의 제작 능력을 과시한 프로젝트였다.

국내는 10월 14일 'SBS 슈퍼콘서트 in 수원'이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이 공연은 'SBS 슈퍼콘서트'의 브랜드 파워와 사업 규모를 레벨업 시킨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또한 2회째인 '더 서울어워즈'를 국내 대표 시상식으로 안착시켜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슈퍼콘서트 타이틀에 협찬사 이름이 붙기도 하는데 꼭 협찬사를 끼고 가야 하나?

공연사업의 수익 모델은 첫째, 티켓 판매, 둘째, 스폰서십인데 방송사 입장에서 티켓 판매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타이틀스폰서십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SBS가 투자하고 주최하는 '뮤직 페스티벌'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우리의 성공을 보고 추격하는 방송사, 기획사가 많을 것 같은데 경쟁력은?

브랜드가 곧 비즈니스이다. 공연사업 분야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려면 SBS만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야 한다. 브랜드 파워는 캐스팅의 우월성, 고품질 프로덕션으로 키울 수 있는데 예능본부장, <인기가요> CP 등 예능본부의 맨파워가 총력을 펼치고 있고 제작 스태프들도 고품질 콘서트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새로운 계획은?

'SBS 슈퍼콘서트'라는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안착을 했다는 판단 하에 올해는 공연사업의 확장성을 시도해 볼 계획이다.

먼저 광주 공연에서 'SBS 슈퍼콘서트' 오리지널 '굿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일단 무료 증정으로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수익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SBS 슈퍼콘서트'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내외 K-POP 유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콘텐츠를 생산, 공유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SBS 슈퍼콘서트'로 유입시키자는 계획이다.

SBS M&C 사무 공간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추진



SBS M&C(Marketing & Communications)는 지난 12월 사명을 변경한 데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하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사무 공간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에 나섰다. 이번 사무 공간 개선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TF 구성으로 시작되었으며 팀장 좌석 폐지, 파티션 제거 및 업무 공간 내 개방형 회의 공간 배치를 통해서 조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늘리고 창의성을 높이겠다는 임직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변화는 즉각 일어나고 있다. 개방형 사무 공간으로 인해서 전체 구성원의 소통이 늘어나고, 선배들도 리더의 권위보다는 자율과 창의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있다. SBS M&C 정해선 대표는 “사무 공간 개선을 통해서 조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늘리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SBS 미디어그룹의 비즈니스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체육계 성폭력 고발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방송기자상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 최재영 기자



김민정 기자 제일 영상기자

체육계 성폭력을 고발한 탐사보도부 정규진, 박세용, 정혜진, 이경원, 정경윤, 최재영, 김민정, 원종진, 사회부 고정현, 정다운, 스포츠부 김형열, 하성룡 기자가 2월 27일(수) 한국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제341회(2019년 1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12명의 기자와 A&T 제일 영상기자는 동 보도로 같은 날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방송기자상도 받았다. 이들 기자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성폭력 혐의로 추가 고소된 사실을 처음 보도한 데 이어, 연속 보도를 통해 우리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과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3월 김한중 부국장 안식년



편성팀 김한중 부국장이 3월에 안식년을 맞이한다. 김한중 부국장은 창사와 함께 스포츠본부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스포츠제작팀장, 빅이벤트 사무국장, 스포츠방송기획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02 한·일월드컵, 2006 도하아시안 게임, 2012 런던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의 스포츠 빅이벤트 방송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SBS 스포츠 방송의 위상을 현재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주역으로 활약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짧죠?” <집으로 가는 길 소이현입니다>

러브FM(수도권 103.5MHz) 월~일 오후 06:05~08:00

헤드폰으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 내가 알던 목소리가 아닌데?’ 드라마에서 듣던 음성은 캐릭터의 성격이 반영돼서 그렇다 쳐도, 그녀의 일상생활 속 목소리는 <동상이몽>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는데도 다른 사람 같습니다. 괜히 헤드폰을 고쳐 쓰고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봅니다.

오프닝 원고가 세 줄쯤 남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 웃음이 묻어있음을 눈치챈다. 흐흐, 낄낄, 으히, 헤헤... 그제야 고개를 들어 오프닝 리허설을 마친 그녀를 바라보니, 긴장이 풀렸는지 개다리춤을 추고 있는 그녀가 보인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길 소이현입니다>는 지난해 9월 10일 처음으로 청취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이제 다섯 달 된 프로그램에 청취자분들이 과분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문자를 보며 이미 제작진의 손을 떠나 청취자들과 소리(소이현 DJ의 줄임말, 소주를 좋아하는 DJ로도 읽힘)가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낸 이

[5514] “오늘 유난히 힘든 하루였는데,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위로받은 기분이에요” 크크, 으하하, 히하... 웃음이 가득한 소디의 목소리에 기분이 좋아지셨으리라 짐작해봅니다. 그런데 ‘위로’라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편지글 느낌의 코너가 있기도 하고, 첫사랑이 떠오르는 사랑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위로’라는 단어가 게시판에 이렇게 자주 등장할 정도는 아닌데 말이죠. 이번에는 괜히 큐시트와 원고를 만지작만지작 거립니다.

‘한 부에 6곡 정도는 나가야지 음악 프로그램이지’ 했는데 큐시트에서 점점 노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1부에는 고작 3곡 뿐. 1부 마지막 곡의 전주가 흐를 때면 늘 소디가 하는 말. “왜 이렇게 시간이 짧죠? 벌써 1부 끝 곡이에요 여러분~” 참하고 싶은 말이 많은 DJ이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다시 출근하는 워킹맘들의 사연은 물론이고 고부갈등, 부부싸움 사연에 상담가처럼 열변을 토합니다. 직장생활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주변 지인들의 경험담을 총동원하여 직장인들의 애환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고민 많은 청춘들에게는 조심스러



우면서도 분명한 공감을 보내기도 하고, 지친 퇴근길 소주 한 잔이 낙인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제철 안주 추천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 경험한 소이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속이 깊고, 말이 예쁜 사람입니다. 지치고 힘든 퇴근길을 함께하기엔 말 많고, 웃음 많은, 소맥장인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매일 저녁 이런 DJ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 박형주 PD(라디오2CP 소속)